



태국, NPC, Bongkok PE 인수 결정
필름 시장 판도 변화 예고

태국의 NPC사는 태국 최대의 HDPE 생산업체인 Bongkok PE(BPE)를 인수키로 의향서를 체결했다. NPC사는 에틸렌 40만 1000톤, 프로필렌 12만 7000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BPE사는 HDPE 20만톤 플랜트를 가동중에 있다. BPE사는 현재 약 5~6만톤 규모의 생산능력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다. NPC사는 BPE를 인수함으로써 계열화가 가능해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BPE의 대주주 방콕은행과 일본 미쓰이상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 다이요사 골판지 식품상자 개발
표면 방수기공

일본의 박스메이커인 다이요사가 E골의 얇은 골판지로 만든 식품용기를 개발했다. 다이요사는 기계업체인 동경제작소와 기계를 공동개발하여 현재 2대를 설치했으며 표면을 방수기공한 원단을 핫멜트로 붙여 트레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제품은 부식, 과자를 담은 용기로 적합하며 지난 4월에 실시된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대응하고 재활용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이요사는 향후 E골 외에도 F골, G골 등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수요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기존의 재질에 비해 비용면에서 고가이나 위생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 월계관사 PVC 라벨을 PET로 대체 Shrink label과 Cap 부분

일본 월계관사는 소형용기의 포장에 사용하는 Shirink 라벨과 용기의 병입구를 포장하는 Cap의 소재로 기존의 PVC재질에서 PET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PVC재질은 가공이 용이하여 소형용기의 Shirink 라벨에 다량 사용되었으나 소각시 염소계 가스를 발생시키고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약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PET 재질은 비용면에서 약점은 있으나 환경친화적이다.

일, 치바공업대학 생분해성봉투 강도향상 연구 환경 친화적 제품제조에 탄력

일본 치바공업대학은 기존 생분해성봉투보다 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제품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멕시코 원산인 알로에 형태와 유사한 류제시란의 섬유를 3~5mm로 잘라서 혼합한 결과 육조 및 헬멧등에 이용되는 강화플라스틱만큼 강도가 향상된 제품을 개발할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생분해성수지는 환경친화적임에도 불

구 강도가 높지 않아 사용이 기피되어 왔었다.

터키, Petkim사 LDPE 설비 건설 계획 2002년 완공예정

터키 Petkim사는 Tubular 프로세스를 도입해 LDPE 12만톤 규모의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약 1억달러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이번 계획은 2002년 완공예정이며 에틸렌 40만톤, 크래커 56만톤도 증설할 예정이다. 현재 PP 8만톤 생산능력도 동년까지 11만톤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일, 석유화학제품 2년 만에 감산 채산성 악화 타계 방안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자 일본의 대형 석유화학 업체들이 제품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미쓰이화학이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의 일부 생산설비시스템을 중단한 것을 비롯해 업계 2위인 도요스틸렌도 올해 말까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최고 20%정도 감산하기로 했다.

최근 2년 간 처음인 일 석유화학 업계의 이같은 감산 움직임은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값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쓰이화학은 이치하라공장(치바현 소재)의 폴리에틸렌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지해 이번달 생산량을 월 평균생산 능력의 5%에 해당하는 2000~3000t 정도를 줄이기로 하는 한편 향후



가격 인상추이를 봐가며 추가 감산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도요스틸랜드도 이 달부터 올 연말까지 가전제품용 폴리에틸렌 생산을 전년대비 10~20% 정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가격 인상을 겨냥한 대형 석유화학 업체의 이번 감산조치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경우, 하청업체인 합성수지 가공회사와 제품 판매처인 슈퍼마켓 시장의 어려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영·네덜란드 합작 로얄 더치 셀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 가속도

영·네덜란드계 석유그룹인 로얄 더치 셀그룹이 중국에서 유화공장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셀 그룹은 중국의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 합작사업을 통해 2005년까지 연산 80만톤 규모의 에틸렌 설비를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영미계 석유그룹인 BP, 독일 BASF사 등의 대형 석유화학 사업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수될 예정이어서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일본, 대일본인쇄 신형 배송전표 라벨 개발
자원절약, 조작성 향상

일본의 대일본인쇄는 최근 신형의 1매화된 배송전표용 라벨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도막형성기술을 구사해 수령표를

박리한 후, 칼라인쇄 또는 투명의 층이 남도록 개발된 것이다. 내수성이 뛰어나 냉장배송에도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이제의 기초재에 박리층, 디자인층, 침착제층, 박리지를 적용한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송처에서 수령인이 수령증을 벗기면 풀 칼라 인쇄된 디자인층이 보여 기업의 광고로도 활용할 수 있다.

프랑스, 플라스틱 포장시장 성장
플라스틱 가공기술 발전 덕택

지난해 프랑스 플라스틱산업 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5%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1999년 총매출액 1.210억 프랑)

프랑스의 플라스틱 산업시장은 유럽국가 중 독일 다음으로 크며, 영국 및 이탈리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가방, 봉지, 병 등 포장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네덜란드, 닭고기포장에 경고문구 표기
살모넬라균 없는 경우에 한해 무포장가능

네덜란드 정부는 오는 2001년 1월부터 닭고기에 살모넬라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했다. 닭고기는 포장후 경고문구(살모넬라 감염경고 및 포장처리, 조리방법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네덜란드의 닭고기는 약 10%가 살모넬라 박테리아 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품질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없는 경우로 합격한 후에 무포장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살모넬라균을 없애는 처리방법을 개발중에 있으며,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지 않은 닭고기 생산 및 판매가 최종목적이라고 밝혔다.

인도, 식품포장산업 유망 식품가공산업 호황에 따라

인도 식품가공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식품포장산업 또한 동반성장이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농산품 상업화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가공, 보존, 포장 등 관련산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했다.

1999년 현재 인도의 식품시장 규모는 7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20억 달러가 고부가가치 식품이다.


현재 인도에서 생산되는 과일 및 채소류 약 2%, 육류 약 1% 정도가 가공 포장 판매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음료수 등은 40%가 포장식품이라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 왕자제지 고지 사용률 높여 환경관련 법규 규제에 따라

일본 왕자제지가 자사의 최고급 인쇄용지 부문에 있어서도 고지의 사용률을 높이고 있다.

왕자제지의 이러한 움직임은 1997년 제정된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실천으로, 동 법규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종이의 원료로 70%이상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며, 최근 그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97년에 59%, 98년에는 59.7%의 고지 사용률을 기록했다.

현재 유색지에 고지 20~50%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지의 사용률을 높이더라도 종이에 대한 가격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왕자제지의 고지사용 현황을 보면, 인쇄용지 부문에서의 사용은 대부분 염료를 첨가한 유색지에 사용하고 있다. 

독 자 결 령 신 설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결럼을 신설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알아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